

프로폴리스의 위력

-지난호 이어서-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7. 축농증

축농증은 눈 밑 뼈속에 있는 상악동(上顎洞)에 염증으로 인해 농즙이 생겨난다. 이것이 심해지면 콧구멍으로 흘러내릴 뿐 아니라 누웠을 때는 목구멍으로도 넘어간다. 코가 잘 막히고 코를 풀면 농후한 누런 코가 나온다.

고개를 숙였을 때는 더 하고, 기억력도 감퇴된다. 공부하는 학생이 축농증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축농증은 비강(鼻腔 : 콧구멍)이 작거나 코감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생긴다. 특히 육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하는 산성체질에 주로 발생하게 되고, 수술 후에 재발되는 것도 산성체질에서 오게된다.

체질을 약알칼리성(PH7.2~7.4) 체액으로 바꾸어 주면 흘러내려 축적되던 농(濃)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낫는다. 현미식을 한지 7~8개월 만에 축농증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꽃가루(花粉)를 복용한 지 6개월만에 축농증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도 꽃가루가 항생제와 같이 직접적인 역할을 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체질을 바꾸어 줌으로써 저항력을 강화시켜 체내 독소가 적어진 데 있다. 체질을 바꾸어 주는 방법을 병행하면서 프로폴리스

를 사용하면 효과는 더욱 빨리 나타난다. 일본의 프로폴리스 주식회사의 나카시마 사장은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였을 때 축농증은 3~6개월에 낫는다고 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축농증은 4개월이면 거의 낫는다. 프로폴리스를 사용할 때 갈숨, 갈륨, 마그네슘이 많이 든 식품과 조효소제 역할을 하는 비타민 B를 많이 섭취해도 효과는 더욱 뚜렷하다.

프로폴리스는 자연항생제로써 염증에 직접적인 역할도 하지만, 청혈작용에 의해 농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단, 항생제 역할만 하는 일반 항생제와는 다르다. 일반 항생제를 사용해서 나았을 때는 재발의 확률이 높지만, 프로폴리스로 완치되면 재발은 거의 없다.

코가 막히는 비후성비염이나 축농증에 프로폴리스 원액을 면봉에 찍어서 그것을 용기 옆에 대고 잔 뒤에 코안 깊숙이 넣었다가 빨리 끄집어낸다. 이 방법을 하루 2회씩만 해 주어도 많이 좋아진다. 특히 주의할 것은 여학생들과 어린이들 가운데는 피부가 약해서 허는 수가 종종 있다. 이들에게는 프로폴리스 원액에 물을 2~3배 탄 그 액에 면봉을 찍어서

코 안 깊숙이 넣어 주어도 좋다. 남자들은 이것을 스포이드에 찍어서 코 안에 몇 방울씩 넣어주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다.

6. 위장병과 대장염에 뛰어난 효과

1. 식중독 때 첫 경험한 프로폴리스

벌들이 채취해 온 프로폴리스가 어디에선가 쓰여질 곳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필자는 70년 초부터 모두 모와 왔다.

일부 양봉업자들 사이에는 상처를 입었을 때 프로폴리스를 붙이면 상처가 화농되지 않고 잘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프로폴리스에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시골에서는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가 나면 목은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천에 발라 붙인다. 그러면 화농되지 않고 잘 낫는다. 된장에는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방부제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오래된 된장에는 항생제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므로 된장을 붙이는 것이 비과학적이 아님이 규명되었다. 그렇다면 프로폴리스 속에도 항생제 성분이 있을 것이다.

봉장에 데리고 있던 종업원과 필자는 맛이 조금 이상한 생선찌개를 먹은 뒤 몇 시간이 지나서 설사를 하게 되었다. 보통 설사가 아니고, 배가 아프면서 몸도 어실어실 추우면서 하는 설사였다.

필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항상 안좋은 상태에 있어서 미열이라도 있게 되면 통증이 더욱 심해 건디기 어렵게 된다.

인가도 없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서 당한 일이지만, 평소 식중독에 대한 상비약은 없었다. 갖고 다니던 것은 아스피린과 소화제 아로나민 그 외 몇가지 연고제가 있었다. 전화도 없는 곳이어서 택시도 부를 수 없었다.

혹 연락이 된다해도 밤중에 이곳까지 올 택시기사도 없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을 때 혹 프로폴리스가 이런데 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식중독은 과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식품속에 있던 나쁜 세균이 장내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속에서 활발하게 증식될 때 오는 현상이다. 프로폴리스 속에는 어떤 항생제 성분이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어 있다고 본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선되지 않은 프로폴리스를 땅콩 굵기의 2개(3g)를 먹었다.

중업원은 그것 먹어도 됩니까? 하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별동안에서 생산된 것은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말을 엉겁결에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답은 명답이었다. 새벽에는 한결 덜했다. 배 아픈 것도 적었고, 설사도 덜했다. 「봐라, 괜찮지 않은가?」하고 큰 소리 한번치고는 저번 분량대로 먹고 낮에 한번 더 먹었더니 배아픈 것도 설사도 멎게 되었다. 양봉인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때부터 프로폴리스는 식중독에 효과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책자를 통해서 프로폴리스가 국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먼저 알게된 사람은 생산하는 양봉인이고, 둘째가 자연식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이었다. 그 다음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물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

2. 위궤양에는 특효

프로폴리스와 관계되는 책들을 보면 프로폴리스가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다고 해 둔 책도 있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책도 있었다.

필자가 소화기 계통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주었을 때 이 계통에는 특효라는 말을 붙여도 괜찮을 정도로 그 효력은 너무나 확실했다.

위염은 염증의 표면이 평면하게 되어있고, 염증이 있어도 심하지 않다. 오래된 위염이라 해도 크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궤양은 다르다. 염증이 오래되어 상처에 뿌리가 생겼다 할 정도로 심화된 상태를 말한다. 궤양은 사마귀같이 울퉁불퉁하게 튀어 나와 있어서 외부로부터 자극도 잘 받는다. 식사도 연하지 않은 굳거나 딱딱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상처에 자극을 주어 피도 잘 나오게 된다.

대장에서 나온 피는 붉은 색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위장이나 십이지장에서 나온 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붉게는 보이지 않는다. 마늘이나 파, 후추 같은 자극성 있는 것을 먹게 되면 따갑고, 아픈 것도 이 때문이다.

궤양에 약을 쓰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수가 많다. 완치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3~4개월 후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것이 궤양성 질환이다.

필자의 발 복숭아뼈 위 삼음교 부위에 조그마한 상처가 하나 생겼다. 가려울 때마다 그 부위를 긁어 주었다. 나올 것 같은 상처가 여러번 재발되고 보니 다른 피부보다 딱딱하고, 약간 튀어 나와 있었다. 이쯤되니 전에 바르면 낫던 연고도 낫지 않고 심심할 때는 손으로 뜯기도 했다. 근육질이 없는 피부에 생긴 상처가 되어서 좀처럼 낫지 않았다.

여기에 비상 수단을 사용한 것이 썩뚝이었다. 62년도 관절염 초기에 썩뚝을 뜯 경험 있어서 썩을

없이 2번 연달아 뜯을 떴다. 그 부위가 헐고 10일만에 딱지가 떨어지고 부터는 완전히 낫게 되었다. 이것을 경험하고서 궤양은 재발이 잘 되고, 완치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궤양성 질환에 프로폴리스로 잘 낫게 된다면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자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클로스터 뉴버그에 있는 공립병원의 픽스의사는 위궤양으로 치료받아야 할 15명의 환자를 선정하여 병원약을 일절 주지 않고, 프로폴리스만을 갖고 사용하도록 했다. 이 중에 14명이 완치되었고, 완치되지 않은 1명은 병원 약과 겹쳐서 완치시켰다.

“다시 17명의 위궤양 환자를 선정하여 이들에게는 외래 환자로 취급해서 병원에서 사용하던 방법대로 해 주었다. 그 결과 17명중 1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2년 후에 나왔던 환자들을 조사했을 때 프로폴리스를 먹고 나왔던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병원 치료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재발되어 있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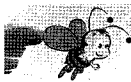
심장병 때문에 수술할 수 없었던 81세의 할머니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는 위궤양을 12년간이나 앓고 있었다. 치료를 받으면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받았지만 더 낫거나 악화되지 않는 고정상태에 있었다. 이 환자에게 6주간 프로폴리스를 복용시켰더니 완치가 되었고, 다시 재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한 흡연으로 위궤양을 앓게 된 50대의 기계공이 있었다. 그는 조금만 더 먹어도 위장의 고통 때문에 견디기 어렵게 되어 식사량도 점점 줄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몹시 허약해져 있었다. 이 환자는 프로폴리스를 먹은 그날부터 통증이 줄어들었다. 보름 후에는 상당한 양의 식사를 하게 되어 체중도 점차 늘어나게 되어서 2개월 뒤에는 정상적인 체중으로 회복되었다고 했다.

먼 친척되는 20대의 조카가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통증이 심하다고 했다. 프로폴리스를 2개월 복용 후에는 괜찮아졌다”고 했다. 2년이 지난 얼마 전에 물어 보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8년간이나 위궤양을 앓아 온 버스 기사분이 있었다. “김치도 매운 것은 먹지 못하고, 식사량도 항상 적게 먹은 듯해야 속이 편하다”고 했다. 4개월이 되었을 때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다. 통증이 없다해서 금방 끊으면 다시 재발 우려가 있으므로 오래 되었을 때는 2~3개월 더 먹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더니 2개월 더 사용하게 되었다. 1년 반이 지난 얼마전에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친척 한 사람과 같이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다.

3. 위장병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한국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장병이 많다. 그



것은 우리의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짜고 매운 것이 위장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백미식을 할 때 싱거우면 밥맛이 없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짜게 먹게 되고, 여기에 감질한 매운 맛이 있어야 밥맛도 더 있다.

우리 민족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위장병 가운데도 위염이나 궤양이 많다. 위염이나 궤양에는 이 병을 유발시키는 세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왔다.

위장속에는 하루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일 3L의 염산을 분비시킨다. 염산은 펩신이라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염산은拿破뎀에 사용하는 강한 산성물질 pH 1.2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독성 물질이다.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상하게 만든다. 이런 물질이 위에서 다량 분비가 되므로 어떤 미생물도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83년 호주의 마셜과 위렌이 위액속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Helicobacter pylori*)균이 생존하는 것을 발견해 녀으로 소화기 계통의 전문의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균의 특성은 산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분비해서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균이나 미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살게 된다. 이 균의 특성은 특별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인간의 수명만큼 생존이 가능하다.

위궤양에는 10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고, 위염에는 60%가 감염되어 있다. 제3차 국제 소화기병, 심포지엄이 95년 11월 웨라톤 위키힐에서 열렸다. 이때 주 의제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에 대한 심포지엄이었다.

필자가 12년간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취급하는 가운데 심한 위장병은 3~4개월이면 완치가 되고 잘 낫지 않는 위궤양도 3~5개월이면 완치가 되었다. 10명이 먹었을 때 몇 사람이 낫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낫는 경이적인 효력이었다. 누가 먹어도 1개월만 먹으면 80~90%가 효력을 인정한다. 이 뛰어난 효과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고 필자는 늘 생각해 왔다. 가랑기나(*Galangina*) 피노세모리나(*Pinocemorina*) 같은 강한 항생물질의 작용과 침투력을 높여주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Bioflavonoid*) 성분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고, 항생물질들이 침투되지 않는 깊숙한 곳까지 침범됨으로 효력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

위염이나 위궤양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프로폴리스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세균의 보호막을 뚫으면서 강한 항생물질이 치명타를 가하고, 상처부위를 재생까지 시켜 주기 때문에 경이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외국산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위장병에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은 없어도 문헌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내산 프로폴리스가 다른 나라 제품보다 뛰어난 효력이 있다고 본다. 소화기 전문의사들 가운데 프로폴리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에도 연구하는 의사나 학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4. 만성 대장염이 낫다.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염산과 펩신이라는 극산성 물질을 분비시켜 소장에서 잘 흡수하게끔 뭉클뭉클한 죽처럼 만든다. 이것이 6m 길이의 소장을 지나는 4~5시간 사이에 모든 영양소가 흡수된다. 대장(大腸)은 소장(小腸) 밑에 붙어 있고, 소장과 대장의 연결지점에 맹장(盲腸)이라는 굵은 돌기가 있다. 대장의 길이는 보통 자신의 신장 정도의 길이로 보면 된다.

소장에서는 주로 탄수화물을 발효시켜 산성물질을 생산한다. 이 산성물질이 단백질을 분해시켜 부패하게 하는 세균의 번식을 막아준다.

소장은 산성물질을 활용하는 장이라고 하면 대장은 알칼리성 물질을 만들어 활용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세균은 산(酸)에는 약해도 약알칼리성에는 강하다. 그래서 대장은 세균의 집합소다. 대장속에 있는 세균의 비율은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나쁜 세균은 10%가 된다.

이곳에서 남은 영양소들은 세균에 의해 발효되어 부패하게 된다. 부패된 찌꺼기와 분해되지 않은 섬유소가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배설물이 되어 나온다. 음식물의 소화물질은 소장에서 흡수되고 물은 대장에서 흡수가 잘 된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 가운데 변비가 생기는 것도 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장내 유익균이 많을 때는 장염이 잘 발생되지 않지만, 해로운 균이 많아져서 일정한 균형이 깨어지면 장염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 원인 가운데는 항생제의 남용, 인스턴트 식품의 선호, 변질된 음식물의 섭취, 너무 찬 음식을 섭취해도 올 수 있다. 장벽에 염증이 일어나면 장 점막이 과민해져서 약간의 자극에도 설사를 하게 된다. 이것이 급성으로 왔지만, 쉽게 낫지 않고, 시일이 지연되면 만성으로 이어진다. 만성(慢性)자가 붙은 병은 잘 낫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만성 대장염이나 과민성 대장염은 잘 낫지 않는다.

그 이유가 세균에 의한 유독성 물질의 집합체가 바로 대장이기 때문이다. 대장에서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은 계란, 조개류, 우유, 생선류 등이다.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특이 체질이라 할 수 있는 과민성 대장염 환자가 먹었을 때는 설사를 잘 하게 된다. 이런 분들은 먹기 전후에 프로폴리스를 먹어주면 사전 예방이 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